마차살 수정 전 아카이빙
644화

<마법명가 차남으로 살아남는 법>

수정 전 회차 아카이빙입니다.

문제 시 삭제합니다.

안내

푸른 글씨는 수정 후와 동일한 부분

녹색 글씨는 추가된 부분

붉은 글씨는 변경 전 부분

검은 글씨는 삭제된 부분

푸른 글씨와 녹색 글씨는 내용 흐름 이해를 위한 일부만 작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품을 열람해 주세요.

오탈자 발견 시 우편함으로 제보바랍니다.

주의



자해, 아동 학대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요소에 민감하신 분은
열람에 주의해 주세요.



루카스와 레오나르드가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는 상황으로 수정된 회차입니다.
수정 전은 아니였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음." ~ 나는 이게 어디서 온 술이기에 이런지 생각했다.

레오나르드는 깊이 생각하다 빙긋 웃었다. 그는 나무라듯 말했다.

"그중에서 고를 수 없어."

'증강된'자, '증강시키는' 자 선호를 만드는 자.

나는 여전히 와인잔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범인일까? 레오나르드는 셋 중에 답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레오나르드는 아무도 범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걸까? 그는 그토록 따스하고 온정 넘치는 탓에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말해 결국 어떤 문제도 직시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다. ~ 고를 수 없다는 말이다.

나는 고개를 까딱이며 한쪽 눈을 찡그렸다.

"아, 앵커링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해 주려고 했는데."

"하하하."

그는 호쾌하게 웃더니 ~ 무뚝뚝하게 대답했지만

레오나르드가 내게 내밀어 준 ~ 경향이 있는 듯하다.

그게 내가 이대로도 괜찮다는 확신을 받고자 하는 바람 한 줌 같은 시도였을지 아니면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르고 자신에게 저지르는 일을 지켜보다 이제 그만하기 바라서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기를 바라는 것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둘 다 말이 되었는데, 나 스스로는 그렇

게 판단하지 않았지만 내가 속해 있던 세상이 삶에 미세하게 침투해 나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명명하고 내게 바뀔 것을 요구했기에, 어쩌면 누군가 나와 같이 틀에서 벗어나 주기를 바라는 지도 모른다.

레오나르드가 술을 마시면서도 나를 ~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더욱 소파에 파고들지 않게 노력해야 했다.

내가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생각 속에서 지쳐가고 있는 것은, 나라는 비표준적 사람의 존재가 존재 자체로 만인의 경고등을 점화하는 방식을 평생 지켜봤고 그들의 망령이 내 머릿속에 자기 반론 형식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내 머릿속의 반론은 빅데이터로 생긴 것이다. 뤼시엔의 조언에 힘입어 엿 먹이는 심정으로 솔직히 말하자면, 내 뇌는 진단상 표준과 아주 약간 달랐는데, 이 X새끼야, 듣고 있냐? 이렇게 솔직하기를 바랐다면 네 시도는 성공이고

나 또한 네 턱 한 대 갈겨주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성공이다. 표준과 다르다는 말은 듣기에 썩 좋지 않아 보이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어떤 이점도 있었다. 머리가 아파서 학교 성적만큼은 잘 나온다는 것이다. 머리가 아프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는가? 머리가 아파서 손쓸 방법이 없었던 유년기의 나는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면 뇌세포가 죽는다는 걸 전집에서 읽고 그걸 좀 죽여보려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뇌세포 좀 죽인다고 내가 남들이 가진 뇌를 선물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아. 하하하."~ 죽지 않는 한 그들이 마련한 정상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은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믿고 싶은 매니저가 태워다 준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한 수천 번의 하루 중 상대적으로 앞서 있었던 하루가 아직 기억이 나는데, 보험

사 CF를 찍고 11시까지 연기 수업을 받은 날이었다. 미성년자는 10시 이후로 학원에 갈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은 무용하다. 어디에나 잘 해주는 선생님들이 있다. 하여튼 그 날은 입만 열면 유독 거세진 입김 탓에 더 추워 보이는 날이기도 했고 창밖을 보면서 Stille Nacht, heilige Nacht를 부르기 좋은 날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이브, 몇 번 겪은 경험은 없지만 소원을 빌면 뭐든 들어주는 밤이 곧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다. 사실 언제든지 가지고 싶은 건 가질 수 있었지만, 그날에는 좀 더 비물질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그렇게 믿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 선생님에게 촬영장 대신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 웬일인지 아버지가 같이 가 준다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하면 정말 먹을 수 있게 되었다든지. 평소에는 말해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성탄절 부근에는 좀 더 하늘의 아량이 넓어지는 것이었다. 씨알도 안 먹힐 말을 에너지 아깝게 하지 않는 성격이지만 이미 방법을 알아 그쯤에는

없는 뻔뻔함도 부려 봤다. 그날 창을 조금 열어 맞은 바람 한 줄기, 매니저 아저씨가 했던 말까지 기억이 난다. 오늘은 기분이 좋구나? 나는 그 사람을 한번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매니저 아저씨는 그때 보기에는 엄청난 어른처럼 보였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갓 취업한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또 내가 고작 다섯 살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동차 안은 그 사회 초년생이 긴장해야 할 촬영장을 벗어나 목석같은 아이 하나 데리고 그나마 편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을 테니 말실수가 잦았다. 그는 내가 말수가 적다는 걸 알았던 첫날에는 크게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그날 내가 대답을 하지 않았을 때 웃으면서 말했다. 너는 다 좋은데 딱 하나가 참 안됐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넌 딱 봐도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 나이에 치료도 못 받고 일이나 하고 있잖아. 그는 말이 없었다. 그러고 그나마 경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집에 돈이라도 있어서 다행인 거야. 그게 없으면 삶이 고돼. 나는 그때 내가 뭐가 안 됐다는 건지 알

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어린 친구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안다. 당시 매니저 아저씨가 하던 모든 말에 아무런 감흥도 없었던 나는 기분이 좋냐는 말에도 돈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에서 내려 좀 더 빠르게 걷기는 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이브였다. 원래 집에 들어가면 몇 시든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날은 은은한 불빛으로 장식된 트리만 나를 반기고 있었다. 식탁에는 트리 앞에 놓을 빈 카드가 있었다. 뭘 해야 할지는 뻔했다. 나는 그날 그야말로 내 뇌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상호작용을 배우고 온 터라 뇌가 울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일이 1년 전 오늘과 또 오늘과 일주일 전과 섞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분화를 목격하기에도 바쁜 나날에 어른들이 자꾸만 말을 걸어 피로했기 때문에, 당면한 난관을 적기로 했다. 아저씨도 내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고. 어른들은 아이를 보면 한눈에 어떤 상태인지 대강이나마 눈치챈다고 들어 배웠기에 그의 말을 나름 신뢰할 만한 말이었다. 그날 알았다. 성탄

절 전날 카드에 나에게 건강한 머리를 주면 평생 고맙게 생각하겠다고 적은 뒤 기다리는 마음으로 잠든다고 해서 어떤 인자한 노인이 내 신체에 '정상'이 되는 축복을 내려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날 내가 남들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내게 인간이 어떨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알려준 두 번째 부모들이 말하기를-많은 경우 나와 다르게 건강한 두뇌를 가졌을 내가 읽은 모든 대본의 작가와 감독들이 내게 말하기를, 이럴 때 인간은 A: 힘들었겠다. 따위의 위로를 해주거나 당황하거나 슬픔을 얼굴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그다지 슬프지 않았다. 의사가 나를 안타깝게 여기고 부모님이 좌절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나의 결여는 내게 결여가 아니었고, 나는 언제나 나에게 '그냥 인간'이었다. 오직 세상이 나를 부모에게 결여된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자식은 어떤 의미로든 정상이어야 했는데, 이때 간

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정상에는 긍정적인 비표준이 포함된다. 긍정성을 가진 존재는 정상이다! 비정상처럼 보이더라도 그건 비표준이지 비정상이 아니다. 이것이, 세상이 결코 직접 말하지 않지만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이 복잡한 결여는 평생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나 결여였지 바깥 사람들에게는 더없는 축복이었기 때문에, 잘만 하면 감출 수 있었다. 나만이 세상이 내게 선사하는 결여, 곧 지독한 유리감을 느끼는 것이다.

너무 다른 인생을 마주하는 순간 인간은 남의 인생에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고민하는 심판관이 되어 버리곤 한다. 미지의 영역에 내가 찬성표를 들어주어야 할까, 반대표를 들어주어야 할까. 그런 인간이 있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다. 말없이 얼굴을 쓸었다.

자, 이렇게 나는 그와 칸케르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조금씩 증명하고 있다. 나는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신인

류 생각을 하다 내 인생 생각을 하기는 해도. 어쩌면 만물이 이어져있다고 내가 그렇게 반복해서 생각하듯, 지금 내가 맞닥뜨리는 신인류 문제도 내 삶과 이어져 있지는 않을까, 그런 우스운 생각을 해 본다. '그래서 이 사건을 동반한 이 시대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는 내가 나에게 정해 주는 것이지 남이 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왜 나는 이 세계에 떨어졌을까? 이 세계가 나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었던 것일까? 그건 너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고 너희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른다. 내가 우리였던 어느 세계에나, 그 세계가 왜 그런 모양이 되어야 했는지 모든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심했듯이. 우리는 오늘날을 보고 기함할 조상과 후손에게 이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는 이상 우리가 '왜 이런 세상' 앞에 있는지 언제나 물어야 했다. 이 세상은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자, 이렇게 문제는 다시 이어진다. 지금까지 내가 겪은 모든 일을 현

재와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로 오기 위해 있어야만 했던 일인 것이다. 내가 여기에 어떻게 대답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세상이 내게 하고자 하는 말을 따져 보고 나만의 의미를 만들 수 있는 지금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 자체가 '나'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칸케르는 내가 텅 비었던 때로 돌아가야 한다고. 순수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고, 그건 '나'의 투명함을 전제한다. 그 전에 나는 이 세상이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려는 고민 따위야말로 정말 사치나 다름없는 자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전까지는 맞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인이 세상과 만물에 대해 가지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해석권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은 이미 칸케르가 나를 대신해 방증해 주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생각을 거치는 이유는 내 눈으로 바라

보는 세상이 언제나 대체로 대중 사이에 이루어지는 논의와 층위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건 뭐가 우선순위를 가지거나 더 낫다는 것이 아니다. 그저 말 그대로 '층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내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대중의 담론은 보통 개미굴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내가 도시의 조형과 수로와 개미굴의 위치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대중의 담론은 하늘과 맞닿은 산꼭대기를 올려다봤다. 이 차이다. 분명 지금까지 그래왔듯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너는 이 주제를 논할 때 개미굴을 봐야지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안 된다, 적어도 너는 개미굴이 있음을 알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할 테지만, 도대체가 그건 나로서는 뭐라 답하기도 어려울 만큼 기상천외한 논점 이탈로 판명되지만 일단 다들 그렇게 말하니 스스로 답하건대, 내 방식으로 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익숙하지 않아도, 그게 어쩌면 어떤 대중적 담론과 배치되더라도, 나는 더 이상 남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않고 싶다. 때늦은 시간이지만 내가 나라는 존재를 이제부터라도

꾸려 나가면 안 되는 걸까?

당연히 질문 아니고 선언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평생 내게 바라왔던 '대중에 의해 표준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안전하게 여기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는.
내가 계속 남들이 이미 했던 이야기를 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내가 연기했던 그 누군가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고, 나더러 그리스도가 되라는 칸케르와 다르지도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문제는 이어진다. 이 거대한 그물이 보이는가? 생전 윤회가 이 그물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살아있을 때 겪은 것이 돌고 돈다는 말은 어쩌면 칸케르의 논리를 강화하는 것 같다. 내가 남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윤회를 통해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아직 이 정도로는 머리가 아프지 않다. 그래서, 다시.

이것은 내 이야기다. 언제나 그랬다. 나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누군가를 보고 네가 참으로 네 이야기의 주인공이구나 하고 감탄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삶의 주인공은 나다. 이것은 내 시선에서 펼쳐져야 하는 이야기지 칸케르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를 잃고 흘러가서는 안 되는 이야기다. 인생을 이야기로 빗댈 수만 있다면…. 따라서 나는 신처럼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조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인간 육신의 한계로 그럴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하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라는 강요는 이런 이야기다- 내가 나 자신에게 점차 솔직해지려고 내가 깨달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기적이니 대중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라고, 이미 인터넷에서 논의한 시각으로 이야기하라고, 이미 살롱과 클럽에서 논의한 시각으로 이야기하라고.

살되 죽은 채로 사느냐, 죽되 살게 되느냐? ~그런 내게

신인류 문제는 앞으로 있을 무덤이다.

“무슨 생각을 해.”

레오나르드는 내 입가에 꽃을 들이댔다.

내가 한 일을 똑같이 따라 하는 것 같다. ~ “내게 말하면서 생각하면 안 돼?”

나는 그의 커다란 눈을 빤히 보다 꽃을 물어뜯었었다. 내 돌발 행동에 레오나르드는 잠시 인상을 썼다가 미묘한 얼굴로 미소 지었다. 반쯤 뜯긴 두꺼운 꽃잎을 한번 씹어 봤는데 맛이 없어도 앵간치 없어야지 보통내기가 아니라 손수건에 뱉었다.

뭐 하는 거야, 타박이 들리는 것 같다. ~ 보통내기가 아니라 손수건에 뱉어야 했다.

레오나르드는 꼭 자기가 내 형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 안다는 듯 말했다.

"너 대답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지."

"거짓말은 못 하겠다. 그래."

나는 입가를 마저 닦고 말했다.

"네가 먼저 말했으니까 일단 들어 봐. 자, 네게 금시초문인 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순간, 내 시야는, 연기적 인격 말고 나라는 인간이 정상 된 적 없는 관계로, 근본적으로 대중의 것과 번번이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고향 앞마당 같은 익숙한 시야를 떠나 의식적으로 눈을 갈아 끼우도록 강요하는 일인 거야."

레오나르드는 내가 자주 말을 쉬어서 그런지 웃어 보이

다가 말했다.

"그게 사람들이 외집단 사람을 극도로 배척하는 이유지. 나와 다르게 사는 사람의 존재는 내가 이대로 있어도 좋은지 계속해서 의심하게 하니."

"그런 거겠지, 뭐. 난 너처럼 다른 삶을 살았는데도 대화가 되는 친구들이 좋아."

그건 전적으로 존중에 기반해 있으므로.

로잘리도 그렇고. ~ "진리로서의 정답을 제시하는 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지.~"

"~외부인이 제시하는 '진리로서의 정답'이 자신이 믿던 정답과 다르다면 그건 자기가 그간 세운 정답을 교체해야 하는 일이 되고, 자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되고는 해. 언제나 그러겠지. 내가 제시하는 관점을 낯설게만 보일 거야. 그렇지만 이왕 나를 기른 세상이 나를 괴짜로 규정하고 치료를 요하는 인간으로 취급했으니, 나는 다른 방식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

"괴짜라, 그랬긴 하지. 그보다 너 참 회귀가 잘 되는구나."

그는 내가 결국 증강 주제로 돌아왔다는 걸 알고 눈을 찡그려 웃었다.

그렇다. 나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해 여기로 돌아왔다. 여기로 돌아오려고 성찰했다.

"흥미롭네."

관성적으로 세상에 떠도는 논리와 서사를 이미 많은 사

람이 안다는 전제하에, 물론 그 관성 또한 공통의 신화가 사라진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정보의 대량생산 사회에서는 어차피 국지적이겠지마는, 나는 그 논의 바깥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내가 제시하려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방향에서 보는 시각이지 정답을 규정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내 시도가 상대주의적 시각에 의해 격파되는 걸 허용한다는 말도 아니다. 그것은 이미 칸케르에게 말했듯이 원천 불가하다. 이렇듯 이미 내가 나의 오랜 생활 환경으로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방식을 그다지 선호하지 못한다는 건 칸케르 덕분에 오래 곱씹었고, 수없이 많은 자가 반론에 대한 어쩌라고 성질은 이미 내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와 융화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방증한다. 애초에 나는 내가 나만의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내 방식대로 대할 수는 있어도 그걸 전적인 진리로 격상시킬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상대주의자였다면 '격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상대주의 세상에서 '진리'는 절대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층위가 다른 개념을 섞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여간 레오나르드가 그걸 알고 우등생답게 출제자의 심리를 읽은 건지 아니면 그가 생각하기에는 내 문제가 너무 쉬웠던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쪽이든 아무래도 좋았다.

"자, 지금까지 말했던 거나 돌아보자.~그렇다면 그것은 유예지.~"

"~ 내게 그건 해결이 아니라 임시방편의 유예야.~"

"~싹이 났는데,~자르는 거야." ~ 하지만 유예가 아주 나쁘기만 할까.

"때로는 유예가 필요해. 예를 들어서 언젠가 무너질 것이라 해도 규제는 중요하지. 우리가 만약 미국 정치인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키워 냈으니 어떻게든 규제를 세우려고 고군분투했을 거야. 그래, 이렇게 우리는 유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 그러니 규제가 시간을 벌어다 주는 사이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해. 무엇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뿌리가 어딨냐고. 과학자와 저 의사결정자들을 잡아들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유예에 천착하기 전에 훨씬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증강을 가능하게 했을까. 왜 사람들은 증강하고 싶어 할까? 어떤 욕망이 인간을 증강의 길로 이끌까? 우리가 그 원인을 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 수 있겠지.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야."

"좋아."

레오나르드는 그렇게 말하고 손가락으로 무릎을 한번 두드렸다.

"지금 하나 짚겠는데, 너는 결국 수백 년이 걸리든 수천 년이 걸리든 전 인류의 증강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구나."

"원하지 않는 방향이지만, 내가 전망하기에 현실적인 기능성을 따지자면 그래. 이대로면 수천 년 뒤에는 모든 인류가 이미 증강된 인류일 거야. 다른 세계를 가정한대도 그럴 수 있지. 증강된 사람이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를 사회의 기준에 맞춰 고쳐 주고, 또 고쳐 주고… 이런 식으로."

나는 21세기를 생각하면서 말을 이었다.

"사실 우리는 인류를 믿지 않을 수 없지만 가끔 인류는

참 단합이 안 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해도, 봐, 저기 미국인들은 자식이 신인류이기를 바라. 당장 다른 독일인들도 그렇지.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생각들이 달라. 어떤 사람은 무분별한 증강을 우려하고 어떤 사람은 기술이 있는데 왜 그걸 낭비하냐고 생각하지. 이건, 인류가 자유롭게 하는 일이기에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 말했지. 첫 번째 우생학이었다면 어쩌면 막을 수 있을 거야. 그건 강제되고 규율로 정해져 있지. 하지만 두 번째 우생학을 막는 방법을 몰라. 그건 전적으로 '좋은 것'에 기반해 있고 무엇보다 자유거든."

우리 시대 사람도 모른다. 우리 시대 사람은 포스터모더니즘 속에서 선잠 자지 않는 법도 아직 못 배웠다. 그들은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자, 우리 시대는 탈혁명적인 시대다. 왜까? 그것은 우리 시대를 추동하는 것이 이제 20세기적 강제와 규율이 아닌, 21세기적 개인의 자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규율에 맞서 들고 일어날 수 있어도

자율에 맞서 들고 일어나기란 아주 어렵다. 이 사회 전반 흐름은 우생학에도 적용되는데, 20세기의 우생학은 21세기의 우생학과 아주 다르다는 걸 이미 말했다. 20세기 우생학의 자리에 21세기 우생학을 대입하는 것은 틀렸고, 21세기 우생학에 해당하는 사례를 20세기 우생학으로 오해하는 것 또한 틀렸다.

21세기에서 우리를 더 생산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공장의 출근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지다. 우리가 '더 나은' 신체를 가지기로 결정하는 것은 나치나 옛날 미국 정부 때문이 아니라 자본 아래 우리 자신의 선택에 기반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상에 '더 나아지기로' 결정하는 '합리적인' '경제적 인간'들을 모두 거스를 수 없을 테고, 내가 아무리 증강을 두려워해도 어떤 사람들은 증강된 자손을 낳을 테고, 이런 시류가 하나의 사회적 흐름이 되고 나면 나와 같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흐름에 반강제적으로 동조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반강

제조차 21세기에는 '저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자기 발전조차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해주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이야' 따위로, 개인의 의지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제 20세기와 21세기의 차이가 보이는가? 이미 변한 미국은 21세기적이다. 지금 보고 있는 문제에 20세기 우생학을 대입하는 것은 정말이지 둘도 없는 헛발질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더 못난 사람을 불임 상태로 만들어야만 하겠다고 입법하지 않았다. 그저, 사람들이 알아서 더 잘생겨지고 싶어 하고 더 오래 건강하기를 바라고 더 똑똑하기를 바란다.

잔을 들어 한 모금 더 마셨다.

나는 아까 하던 말에서 완전히 멈춰 생각에 빠졌다.

이 세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더 잘생긴 얼굴 따위

의 부수적 속성에 대한 선호는 내가 살던 세계가 더 강했다. 이 세계의 신인류는 주로 수명 연장과 신화적 재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물론 국가마다 선호가 달라 신인류의 신체가 다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21세기적인 가치보다는 신체 건강, 부국강병, 기독교 이 세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21세기였다면 무조건 신인류는 질병도 질병인데 모두 내 눈앞에 앉은 레오나르드처럼 생기게 되었을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레오나르드의 얼굴에 대고 보였던 반응을 기억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이 시대 사람들은-구인류 신인류 막론하고- 얼굴도 어느 정도 준수해야 국가 자존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해도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만드는 21세기의 시류만큼 외모에 집착하지는 않는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미안해질 지경이다. 나는 21세기에서, 내 얼굴처럼 만들어 달라며 사진을 들고 성형외과에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그것이 내가 동년배 남자 배우 중에서 독보적인 얼굴을 가졌다는 어떠한 증명이라도 되는 것

처럼 말해 주려는 친구들에게 자랑처럼 들었을 때 목덜미가 서늘했다. 그날 먹은 음식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어딘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믿었다. 그들이 정말로 내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닐테다. 단지 얼굴만 가지고 싶었던 것이겠으나, 그렇다 해도 나는 그들이 이것을 사전적 의미의 '개선'이라고 여긴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고 얼굴 소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도 유쾌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그들에게 태어난 얼굴을 바꿔야 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건 내가 가진 것을 따라 해 내 가치가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의미에서 두려운 게 아니라-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들이 성형한다고 내가 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더 낫게 만든다는 믿음으로 자신을 어떤 식으로든 변형시킬 자신이 있다는 것, 그것이 두려웠다. 지금이야 성형이 자기관리로 취급되고 있으니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은 인식의 문제다. 만약 사회가 오늘부터 세 팔을 선호하면 이제 인간 사회에는 팔

한 짝 더 붙이는 성형이 성행될까?

미용 성형은 내가 살던 시대에 자기관리가 되었다. 그건 사전적 의미의 증강으로 인식되는 듯하다.

그렇다면 언젠가 과학적 용어-유전자 편집으로서의 '증강'이 자기관리가 될 가능성은?

성형으로 불가능한 영역, 나를 완전히 빼닮는 일이 유전자 편집으로는 가능하다. 내 자식을 이 나라에서 제일 잘나게 생겼다는 가수와 배우처럼 생기게 만들 수 있다. 내 사진을 들고 성형외과에 방문하던 그 젊은이들이 이 기회를 마다할까?

그러니 수천 년 뒤 인류가 모두 증강된 인류, 즉 어떤 종류로든 '신'인류이리라 믿는 것은 과도한 믿음인가? 내가 '수백 년'을 '수천 년'이라 부르는 만행을 저지름으로

써 인류의 추진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인류에게 닥칠 미래는 조만간인데 대비할 시간이 많은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아닌가. 즉 내가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수천 년'이라는, 길가메시 서사시부터 우주 탐사까지 걸렸던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한 번 더 반복해서야 유전자 편집 인간이 지구를 전부 차지하리라고 믿는 것은 아닌가? 22세기나 23세기나 24세기쯤 이미 선진국 인구를 거의 다 교체했을 미래를 내가 51세기쯤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너무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 주제에는 미용 성형과는 비교도 되지 않아 보이는 윤리적 문제,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결부되어 있으므로 사정이 좀 나을지도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묻건대, 미용 성형으로 불가능한 영역, 나를 완전히 빼닮는

일이 유전자 편집으로는 가능하다. 내 사진을 들고 성형외과에 방문하던 그 젊은이들이 기회를 마다할까?
그래, 전부 그들의 자유다. 내가 말릴 수는 없는 것이다. 내가 그들의 타고 난 얼굴 자체에 어떤 가치평가를 내리지 않고 또 그저 있는 그대로 그들이 완전하지 않을 리 없다고 진심으로 믿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이미 나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 어떠한 가치평가를 내려서, 이보다 더 나은 조형이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 가치평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상에서의 사소한 차별과 기분 나쁜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미디어가 발달했으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아냐."

나는 현기증이 나 화장실에서 가서 물을 마셨다. 유럽 석회수를 어떻게 그냥 마시냐고. 사람이 그 자리에서 토하고 싶지 않으면 뭐든 한다.

신인류가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자기 혼자 '인간'인 줄 알고 룰루랄라하면서 살아도 결과적으로 존재 자체로 더 나은 사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듯이, 나를 상품으로 내세운 부모님과 회사는 이미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나는-부모님은 더 나은 얼굴에 대한 기준을 대중에게 제시했다. 그렇게 제시해서 돈을 벌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럼 내 연기가 좋아 전적으로 그 이유만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았어? 아니, 아닌 것 알았다. 연기판은 주연을 얼굴로 고른다. 이건 전 세계 공통이다. 연기력이 받쳐준다는 것을 전제하고, 주인공 할 얼굴이 있고 조연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얼굴이 있다고 그들이 말한다. 얼굴이 충족되었기에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내가 원치 않는 기회라 해도!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모든 것이 내 정신을 잃게 만들려고 합심한 것처럼 보였고 더없이 속이 울렁거렸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명료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래, 이래서 두렵다고. 사람 얼굴에 집착하는 사람도 두렵고 내가 좋은 얼굴을 가졌다는 걸 알아 돈벌이로 써먹은 자들도 두렵다. 모두가 알면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여태 나만…. 당연히 나만 모르고 있지는 않았다. 나도 알았을 것이다. 어렴풋이. 알았어도 명료한 생각으로 하필 이런 순간에 되새기는 건 차원이 다른 일이다.

사람이 속성으로 치환된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못생긴 얼굴이라는 속성으로 치환되는데 너는 아니니 감사하게 여겨라'라고 할 수 있을 테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나는 인간을 속성으로 치환하는 일 자체를 배격한다. 긍정성의 속성이든 부정성의 속성이든 '속성화'는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대신 자본적 가치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데에 적극 찬성한다. 알겠는가?

“알긴 누가 알아, XX….”

나는 거울 옆 벽에 별 의미 없이 주먹을 꽂으면서 중얼거렸다. 지탱하는 김에 거울에 머리를 기댔다. 내가 누구한테 말하냐? 칸케르? 나? 이런 경우 대부분 나에게 말하는 것이다. 나를 달래려고. 안 달래도 된다. 생각하면 피가 식는다.

인간이 인간임을 알게 하는 대신 속성으로 분절하고 대표하고 치환할 수 있는, 그렇게 값을 매기고, 그 속성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단편적이고 단면적인 존재로 변하게 만든다. 신자유주의 아래의 우리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람을 속성으로 치환해서는 안 되고, 이 경우 긍정적인 속성으로 치환하는 것을 어떤 문제도 없는 일로 간과하기 쉽지만 부정적인 속성으로 사람을 치환하는 것만큼이나 경계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긍정적인 속성으로 치환하는 일

또한 복잡다단한 인간을 속성에 종속시키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나를 돈벌이로 사용한 부모님에게 나는 한 사람인 적 없었고, '아름다운' '내' 아들이라는 속성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 속성이 나를 잡아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속성 자신의 이름으로 소개한 걸로 모자라, 부모님에게도 자기가 곧 나인 척하고 찾아가서는, 평생….

나는 내 외피에 갇혀 있었다.

평생 부모는 나를 만난 적이 없다.

대신 태어날 적부터 나를 집어삼킨 내 껍데기를 만났지. 그들은 내 속성을 만나서 나라고 착각했다. 나는 부모를 보고 있었지만 부모는 평생 내 껍데기랑 대화했다. 그들은 나를 병원에 데려가기 전에 그들 자신을 돌아봐야 했을지도 모른다….

춥다. 나는 거울에서 스미는 한기에 천천히 고개를 뗐다. 신자유주의는 여느 때보다 열광적이고 자유로운 모습을 하고 여느 때보다 사람을 사람과 단절한다. 멀고도 멀다. 우리는 서로를 이제 속성으로만 판단한다. 이성 둘끼리 붙어 있으면 에로스적 사랑인 줄 아는 것도 어쩌면 논리가 유사한 단ㄱ순한 사고방식인데 이제 이 문제는 그보다 잠재적 위험성이 일억 배는 더하다. 숙고 없는 즉각적 판단이 시대를 잘 만나면 이제 이성 둘은 무작정 연인으로 취급하는 걸로 모자라 사람까지 속성으로 완전히 바꿔 버린다. 그가 속성이 아니라는 건 친해지고 나서야, 아주 깊이 내밀한 어딘가에 서로 말과 눈빛으로서 다녀올 때에야 알게 되는 것이다. 이 시대에는 그렇게 부단히 노력해야 서로가 어떠어떠한 속성이 아니라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고유한 인간임을 깨닫는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그제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지식으로 뭔들. 우리는 말로는 이미 우리가 고유하고 복잡하고 또 뭐시기하고 하여튼 그런 존재라

고 온갖 진실된 말이야 할 수 있다. 다만 일상에서 그렇게 체감하지 못해서, 타인을 속성으로 치환하고 마는데, 그러는 줄 모른다.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게."

나는 눈만 들어 거울로 뒤를 봤다. 레오나르드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세면대를 한번 봤다가 거울을 보며 말했다.

"말을 해야 알지."

기척 없이 워프하는 법 누가 가르쳐 준 사람?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뒤돌아 그의 머리카락을 마구 헤집었다. 뭔가 말해 주고 싶어도 준비하고 말해 주어야 했

다. 이번에도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말한다.

"너는 화장실로 워프하는 법도 알고 참 많이 배웠다. 야, 이게 더 낫네. 학교 다닐 때처럼 이러고 다녀라, 짜식아."

"하하!"

하하…? 나는 내 마음대로 머리를 죄다 잡아 내려도 핀잔하지 않는 레오나르드에게 소름이 돋아 닭살을 쓸어내리면서 의문스러워했다. 나는 수도꼭지를 가리키며 그에게도 석회수를 권했지만 그는 정중하게 사양했다. 우리는 바깥으로 나갔다. 도로 자리에 앉았다. 레오나르드는 본인이 생각하는 정답을 말하기도 전에 내가 암묵적으로 대화를 차단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본인은 이런 상황에서 굳이 말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느긋하게 침묵했다.

누군가는 잘나게 태어났으면 감사하라고 말한다.

나는 무언가 두뇌에서 이상한 작용이 있어 일부 잘나게 태어나지 못했는지 그 잘남에 대한 기준조차 후천적으로 매 순간 의식해 학습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인간 세계 외부에 있고, 그것이 매니저 아저씨가 말했던 어떤 '치료해야 할' 속성이라, 늘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못하므로 이런 면에서는 감사한 일인지도 모른다. 나는 나의 얼굴이든 우리 집안의 재산이든 내 친구든 대중이든 모두 전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없고 또 전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 없어서 대신 현상의 본질로 파고든다. 그리고 지금처럼, 어떤 요소가 인간 사회를 얼마나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일인지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연예인이 아니라 철학자를 해야 했다면, 그럴지도 모른다. 나는 두뇌가 무거워 책상에 얼굴을 박을 때까지 생각하다가 학계에 이름 한 줄 남기면 그쯤으로 내가 타고난 출세운은 다 쓴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았는데, 우리 부

모님이 나를 속성으로 치환하시는 덕분에 이렇게 됐다. 결국 그 이상한 두뇌 때문에 내 얼굴은 내가 가졌어도 남의 가치평가 아래서는 한참 동떨어졌고 우리 집안의 재산도 내가 가졌어도 내가 학습하게 된 비판적 사고력 아래서는 끝없아 역겨워지는 것이다. 모든 것에 유리되는 두뇌란 바깥에서 생각하기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서도 내가 안에 있다는 걸 의식하고 계속 세상에 대항하게 한다. 그렇다고 가만있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칸케르 말을 정리해 '어떤 고통도 호소한다면 그 즉시 염치없어지는 위치에 있음을 스스로 아는 이중 구조의 관짝' 안에 갇혀 살았다는 걸 알더라도, 내가 세상에 어떤 행동을 하기에는 나는 부잣집에서 자랐다고 해도, 나는 어떤 사람들이 분명 기능적 결함이라고 부를 만한 내 두뇌의 이상으로 인해 실로 그것이 내 것 같았던 적이 없고, 물론 그런 결함이 나의 인지와 세간의 인식을 유리시켰다 하더라도 내가 그 환경에서 자란 건 사실이기에 염치가 없게 느껴지기야 한다마는, 그래도 나는 이 관짝 안에

서 살았어도 이제는 계속 뭔가가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나불대야 했다. 그게 인류로서 내가 가진 마지막 책임이다. 그리스도로서 가진 책임이 아니라. 나는 관자놀이를 짚고 있다가 자리에 일어나 재킷을 입으면서 말했다. 레오나르드에게 이 정도는 지금 말할 수 있었다.

21세기, 그 말이 목구멍에 맴돌아 술을 삼킨다. ~ 술을 한 모금 마시면서 한 마디씩 꺼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얼굴을 고치는 사람들을 생각해."

"얼굴을 고친다면. 화장? 재건성형?"

레오나르드는 그 말이 상상이 되지 않는지 물었다. 나는 그에게 나와 같이 일어나라고 손짓하면서 언젠가 회사를 통해 들었던 것들을 말했다.

“미용 성형. 칼로 살을 찢거나 열어서.”~ “당연해?”

“글쎄. ~ 신인류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하지만 그렇게 믿을 뿐일지도 몰라. 무한 자유 경쟁 그리고 무한 성장의 사회에서 개인이 직접 자유롭게 사회의 가치가 향하는 곳으로 선택해서 가는 것을 자의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물을지도 모르지. 그게 진정한 자의일까? ‘나도 성형했지만 사실 사회의 영향이 컸지, 내가 이러이러한 일만 겪지 않았어도 나는 내 얼굴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았을 거야’, 아니면 ‘나도 내 의지로 성형했다고 믿지만 사실 개인과 사회를 분리할 수는 없을 거야’ 같은 답변이 있다면? 자의의 영역은 어디까지야?”

레오나르드는 의외로 헛웃음을 치며 기함했는데, 당연하다. 누가 와도 같은 반응이다. 그는 19-20세기적 독일

의 1880년생이다. 안녕하십니까, 조상님…. 해야 할 수준이다. 18979년생-1880년생 전후에 살던 조상님들이 세계대전으로부터 발전한 미용 성형을 어떻게 알겠는가? 신인류가 뭘 그런 거 가지고 놀라냐고? 아니, 신인류는 자기가 신인류라고 먼저 인식 못 하고 산다. 또 이 지구의 인간들은 이제 미용 성형보다 유전자 조작을 더 간편하고 윤리적인 일로 여길 테다. 애초에 태어나서 직접 고통을 느끼며 무언가를 고쳐야 할 만한 일이라면 그는 분명 사는 동안 사회적인 부조리를 겪거나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나날을 보냈을 테고 수술하는 과정과 이후에도 계속 통증과 부작용을 고려해야 할 텐데, 그러기 전에 아예 태어나기 전 유전자 단계에서 손을 봐 아이에게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윤리적으로 낫다고. 온갖 칼럼에서 할 만한 소리를 미리 예측한다. 내가 이미 생체 에너지로 돌아가는 가상 지구는 전기와 화석연료로 돌아가는 지구와는 다르게 윤리관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했듯, 바뀐 지구도 마찬가지다.

사실 미용 성형을 결정한 그 개개인의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을 성형하도록 만든 사회가 나는 두려웠다. 못생겼다고 간주되는 사람보다 잘생겼다고 간주되는 사람에게 환호를 보내고 못생겼다고 간주되는 사람보다 잘생겼다고 간주되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하는 사회가. 당연한 말이지만, 이 사회가 '증강된' 사람을 만든다!

그들에게는 '간주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인다고 한다. 그 미세한 경험이, 차별과 비선호의 기억이 그들에게 외모에 집착하도록한다. 내 자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그들의 자식이 사회에서 어떻게든 최고의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예쁘면 좋으니까. 그렇게 대답한다. 이제 선호를 만든 건 누구인가. 사회가 아름다움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고 지금까지도 알 수 없다. 똑같다. 내 아이가 더 낫게 생기고 더 나은 건강을 가지고 더 나은 머리를 가지기 바라서 이들은 신인류가 되기로 한다. 이 선호를 이

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그저 간단히 속성에 대한 선호일 뿐인데, 속성을 선호하지 않게 할 생각인가? 우리가 누군가의 미용 성형을 강제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의 증강을 이제 어떻게 막지? 그 질문을 해야 했다. 이것이 미용 성형과 유사한 사태이면서도 사실 그보다 조금 더 집요하게 논해야 하는 윤리적 문제가 있으므로, 어쩌면 우리는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속성. 다시 한번 나는 눈을 찡그리며 볼도 같이 당겼다. 레오나르드는 내가 손짓하는 대로 옷을 갖춰 입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 표정이 좋지 않아지는 걸 보면서 손가락을 튕겼다.

나는 바깥으로 나갔다. 레오나르드가 약속에 가기 전까지 나는 바이에른에 설치된 미메시스 비슷한 것을 찾아갈 작정이다.

"사람을 속성으로 치환하는 시대가 신인류 시대 이전에 와." ~ 눈썹뼈를 누르면서 속삭였다.

그리고 그때나 이제나 알고 있었다. 별로 놀랍지도 않다. 이런 시대에 살아서, 사람을 사람으로 알기보다 속성으로 알고 마는 시대에 살아서, 부모님은 나를 사람으로 보기보다 조건이 항상 따라다니는 인간, 외적 조건이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하게 압도하는 인간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지금 이 세계에 있는 미국이 내가 살던 21세기의 그 시대를 똑같이 베낀다. 미국인은 인류를 구인류와 신인류로 분별하고 그 각각에 속성을 덧붙였다. 왜 그렇게 내 속을 긁을까? 세상에 환상적인 것 하나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일까? 내 어떤 트라우마라도 자극해 포기하고 그리스도가 되라는 건 뭐 당연히 아닐 테고 트라우마도 아니다. 내가 그리 상처가 많아 보이디? 어 그래 웃기지 마라. 있었던 일 말하는 건데 다들 나보다 공감 능력이 좋아 더 생각해 주는 거

겠지, 나는 그다지 많은 일에 유감이 있지 않았다. 유감을 가지게 된 건 다 큰 뒤에 있었던 일 때문이지 그전에는 아니다. 그 이후에도 향상성 때문에 어느 정도는 딱히 아니었다. 나는 새로 생긴 트라우마도 이 악물고 치워버렸는데. '사람을 속성으로 치환하는 시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자랐고, 내가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도록 부모님이 나를 하나의 고유한 인간이기보다 좋은 특성을 가진 아이로 대하고야 만 것이다. 자, 긍정적 속성이든 부정적 속성이든 속성으로 대표되는 인산은 인간이 되기보다 속성이 되어 버린다. 속성이 되고 만 인간을 내 편과 남의 편으로 나누어 가르기는 너무나 쉽다. 이제 종족주의가 판을 친다. 저 사람은 저 속성을 가졌으므로 저 종족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집단이 겪어서는 안 되는 어떤 일도 겪을 수 있다. 다른 속성을 가진 자의 고통은 멀어진다. 공감은 이제 훈련이 필요할 지경이다. 저 땅에는 폭탄이 떨어져도 사실 좀 안타깝지만 하는 수 없고, 저 사람은 좀 부당해 보이기는 하지만 자살을 기도할 만큼

욕먹어도 싼데, 그건 그들이 선진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고, 저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벌거나 돈을 너무 적게 벌기 때문이다. 또는 그런 직업을 택했기 때문이다. 누구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무의식이 제일 무섭다는 걸 안다.

우리는 새벽별 아래 더는 입김이 나지 않는 5월의 어느 공기를 마시고 있다. 별로 위안이 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것이 다른 시기 다른 겉모습을 쓰고 나타난다는 것쯤은 쉽게 느껴졌다. 레오나르드의 답변은 다 듣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이제 들을 테니 문제는 없다. 그라면 어떻게 대답할지 예상이 가기도 하고. 그 전에 내 기분을 해결해야 했다. 왜 세상이 내게 이 세상을 보여줄까.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의 근원으로 내려가 둘의 연관을 찾아내고만 것일까.

돈을 많이 버는 자는 부당한 자본주의 구조에서 누군가

를 착취해 얻은 돈으로 호의호식하기 때문에 그는 죽어도 싸고, 돈을 적게 버는 자는 사회적 태만을 통해 동료 시민들에게 짐을 지우고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세금을 더 징수하게 만드는 자이므로 그는 죽어도 싸다고, 이 말 같잖은 이유로 비상식적인 부조리가 가능해지는 속성화된 시대. 존중하려는 노력 대신 척수반사만큼이나 즉각적인 판단으로 말미암은 천박함이 자리하는 시대. 무엇이 이런 극단적인 당위를 허용하는가? 속성이다. 우리는 사회 문제와 그 부역자들을 비판하되 그가 가진 어떠한 속성이 그를 죽여도 되게 만들거나 죽을 만큼 비난해도 되는 존재로 만들지 않음을 알아야 하고 또 '알지만', 우리에게 우리와 타자는 이미 '무의식에서' 사람이 아니라 속성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하던 일을 한다. 그리고 이 사소한 부조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증강되기로 '무의식적으로' 결정한다. 부조리를 피하고 피라미드 맨 끝으로 올라가는 것이 '자기만족적'이기 때문이다. 이제 인류는 나 자신까지 속성으로 치환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시 상태.

아니겠는가?

눈을 감는다. 감았다가 뜬다, 천천히. ~ “왜.”